
남북관계 변화와 남북협력 방향

정 세 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(전 통일부 장관)
90301176@hanmail.net

남북관계 변화와 남북협력 방향

정 세 현 (전 통일부 장관)

1. 한반도 운전자론

❖ 작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
<한반도 운전자론> 제안

➔ 트럼프 대통령 동의

- 4.27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
<길잡이>로 성격 규정

1. 한반도 운전자론

❖ 2.9, 김여정 특사 방남

➡ 3.5 안보실장-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

- 3.8, 특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 전달

- 트럼프 대통령, 즉각 북미 정상회담 수락

1. 한반도 운전자론

❖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부진

➡ 5.26 2차 남북 정상회담 전격 개최

➡ 북미 정상회담(6.12 싱가포르) 불씨 살려냄

- 5.24 트럼프: 북미 정상회담 거부 편지 공개

2. 북미 정상회담: 북미수교-평화구축-비핵화 교환 합의

❖ '악의 축', '깡패국가'로 악마화 되어온
북한 수반이 미국 대통령과 1대1 회담

- 김정은-트럼프의 카펠라 호텔 상봉으로 북한은 정상국가화

2. 북미 정상회담: 북미수교-평화구축-비핵화 교환 합의

❖ 북미 정상이 채택한 싱가포르 공동선언

- 1) 북미수교
- 2) 평화체제 구축
- 3) 북한 비핵화
- 4) 미군유해 송환

기존 북미 핵합의와는 역순

* 기존 핵합의: 1)북 비핵화 2)북미수교 3)경제지원 4)평화체제

2. 북미 정상회담: 북미수교-평화구축-비핵화 교환 합의

❖ 북미수교-평화체제-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면
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

- 90년대 초 한소수교-한중수교 후 절반만으로 명맥을 유지해온
한반도 냉전구조가 마저 해체
- 남북 적대관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국제환경 조성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<운전자론> <길잡이론>으로 시작,
한국 주도로 한반도 냉전구조가 마저 해체되고
4강 중심의 기존 동북아 국제질서가 재편되어
나가는 상황에서 습관적인 대미 의존 외교는 부적절

- “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변수가 아닙니다”
(2018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)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북미가 다시 접점을 찾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 되면,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본격 추진 될 듯

-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2년부터 구체화돼 온 북한의 22개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의식하고 수립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

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북한의 경제특구 분포

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북한 경제의 대미-대일-대중 의존도보다 대남 의존도가 커져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

- 신 경제지도 축선과 경제특구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

3. 향후 남북관계 전망

❖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



4. 맺음말

❖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·개혁 필요성은 식량문제로부터 제기

- 중국의 4개 현대화 계획:

1)농업 2)공업 3)국방 4)과학·기술 순

- 베트남도 도이모이(刷新) 정책 추진 후 식량 문제 해결

4. 맺음말

❖ 북한이 농업분야 남북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

- 식량 증산 뿐 아니라 농약, 비료, 농기계, 영농자재 관련 협력 사업 준비 필요
- 농업-농촌 문제 연구기관의 역할 중요